

초엄선사 「三花傳」의 작중인물과 공간의 실체

하 강 진*

차 례

- | | |
|----------------------|---------------------|
| I. 서론 | IV. 「삼화전」 공간배경의 현장성 |
| II. 초엄선사 생애의 재구 | V. 결론 |
| III. 「삼화전」 등장인물의 역사성 | |

국문초록

초엄선사가 지은 「삼화전」은 불가(佛家)의 전 문학의 양상을 고찰하는 과정에서 최근 주목을 받고 있다. 하지만 등장인물들의 성격을 의인화된 대상으로 규정하거나 공간배경을 초엄의 실제 삶과는 밀착되게 해석하지 않았다. 본고에서는 지금까지 잘 알려지지 않은 초엄선사의 생애를 재구성하고, 이를 연결고리로 삼아 작품 내적 세계의 성격을 새롭게 규명하고자 했다.

초엄선사는 1828년경 영남의 고성에서 박씨 가문의 아들로 출생했는데, 적어도 1843년 출가하여 이듬해 고성 옥천사에 득도(得度)했다. 그리고 늦어도 1852년 이후 박치복과 강위에게 시문을 익혀 명성을 얻었다. 하지만 세상에서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고, 불교 경전을 철저히 강학하고

* 동서대학교 영상매스컴학부 영상문학전공 교수.

무주(無住)의 참선을 수행하여 심오한 불교 진리를 깨달았으며, 말년에는 전국 산천을 주유하며 무아(無我)의 대 자유를 누리다가 1880년대 이후 변방의 사막에서 입적한 것으로 보인다.

「삼화전」은 작가가 삼화로 대칭된 탁전(托傳)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주인공 삼화와 이를 둘러싼 여러 보조인물이 모두 역사적 실존인물들을 주목해야 한다. 이를 간과할 경우 「삼화전」을 가전(假傳)적 성격으로 보고 인물들을 의인화된 학, 소나무, 화초, 대나무 등의 자연물로 치환해 버리는 논리에 이르기 때문이다. 작품 내에 설정된 공간도 모두 실재한 현장으로서 삼화가 계기적으로 구도한 장소라는 사실이다.

「삼화전」은 평범하고 완고했던 개인이 원숙한 불교 각성자로 변모하기까지의 내면 변화를 묘사하고 있다. 삼화의 각고의 구도 과정에 매개된 실재 인물과 공간을 차례로 나열함으로써 내면 체험의 진실성을 독자들에게 제공하고자 했다.

주제어 : 「삼화전(三花傳)」, 석전정호(石顛鼎鎬), 초엄선사(草廣禪師), 자전(自傳), 주인공, 보조인물, 공간, 역사성, 현장성.

I. 서론

조선후기 초엄선사(草廣禪師)의 『초엄유고』 서두에 수록된 「三花傳」은 ‘나’ 대신에 ‘삼화’를 주인공으로 내세웠고, 삼화가 화자의 대칭으로 연결되는 삼인칭 자전(自傳)이다. 곧 저자와 동일성을 갖는 주인공과 화자를 설정함으로써 자서전의 성립 계약을 충족하고 있다.¹⁾ 최근의 연구를 보면 「삼화전」이 전통의 자전 형식을 계승하면서 승전(僧傳)의 자전 양식을 새롭게 개척한 탁전(托傳)으로 자전적 글쓰기의 독특한 방식을

1) 필립 르죈/윤진 역, 『자서전의 규약』, 문학과지성사, 1998, p.19.

보여주는 작품으로 조명하고 있다.²⁾ 「삼화전」이 검토 작품들 중의 하나로 활용되었지만 승전의 연구 확장과 자전의 다양한 양상을 살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대개 자전의 양식적 특징이 작가가 경험한 세계를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다. 특히 탁전을 연구할 때는 작중인물이나 공간이 허구적으로 창조된 것인지, 아니면 실체를 바탕으로 형상화된 것인지에 대한 분석이 전제되어야 작가의 입전 의도를 합당하게 해석할 수 있다.

「삼화전」에서 주인공 삼화의 생애가 소략하게 서술되어 있고, 실재 인물인 초엄선사에 대한 외적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자료도 그다지 많지 않다. 이러한 사정은 석전정호(石顛鼎鎬 1870~1948)가 조선후기 불교계에서 차지하는 초엄의 존재를 주목한 뒤 초의선사와 대등하게 위상을 평가하여 『초엄유고』를 편집한 것에 비하면 매우 의외의 일이라 하겠다. 애초부터 초엄 자신이 성명이나 연령, 출생지를 밝히지 않았으니 생애 내력을 간접적으로 접할 수밖에 없었던 편집자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것이다.

화자이자 주인공을 삼화로 명명한 것은 작가의 특별한 의도가 개입된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삼화가 만난 현학관선생(玄鶴館先生), 소금공(小琴公), 향농선생(香農先生), 청간선생(靑竿先生) 등은 본래 이름 대신 별칭으로 나타나고 있다. 보조인물들을 선생이나 공으로 칭함으로써 고상한 존재임을 넉넉히 알려주는 명명 효과가 있다. 하지만 이들이 작가가 의인화한 가공인물인지, 아니면 실제 인물인지는 작품 내적 정보와 외적 세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드러날 것이다.

2) 김승호, 「불가 자전의 성격과 서술유형의 고찰-有一, 草广, 凡海의 자전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연구』35집, 동국대 문화학술원 한국문학연구소, 2008.

심경호, 「초암, <삼화전>-가고 머무는 것이 고정됨이 없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 선인들의 자서전』, 이가서, 2010. 여기서 저자는 ‘草广’을 ‘초암’으로 표기했으나 ‘초엄’이 맞다.

또한 작품의 내적 공간으로 설정한 황매산, 연화봉, 여산, 삼폭, 호계고사 등도 유사한 의미 체계가 있다. 이들 공간이 인물의 내면 변화를 강조하기 위해 관습적으로 활용된 중국 지명이나 사찰인지, 아니면 주인공의 체험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현실 세계인지를 제대로 밝혀야 타당한 결말을 도출할 수 있다. 이는 외부 작가와 관련하여 꼼꼼히 따져보아야 할 대상이 된다.

「삼화전」의 작가, 등장인물, 공간 배경에 대한 정보의 미비나 부재라는 텍스트 내적 조건은 작품 이해의 향방을 가늠하게 하는 관건이 된다. 특히 자전 양식이므로 합리적인 해석을 위해서는 외부 작가, 내부 인물과 공간의 실제 규명을 선결 과제의 하나로 인식해야 되리라 본다. 이런 시각에서 논지를 중점적으로 전개해나갈 것인데, 『초엄유고』나 보조인물과 관련된 시문 자료를 적절히 활용할 것이다.

필자의 시도는 「삼화전」의 갈래 성격을 의인화된 작품으로 단정한 선행 연구와는 확연히 다른 입장임을 보여줄 것이고, 이 결과는 향후 서사구조나 작품성 연구를 진척해나가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II. 초엄선사 생애의 재구

초엄선사의 모호한 생애를 재구성하는 데 있어서 속명 박한영(朴漢永)으로 널리 알려진 석전정호가 지은 세 편의 글이 주요한 자료가 된다. 첫째는 1925년에 지은 『초엄유고』의 서문이고, 둘째는 내용은 대동소이하되 문자의 출입이 약간 다른 「집초엄상인유고서」이며, 셋째는 「상인명가근칭초엄초의」이다. 먼저 전반적인 생애가 서술되어 있는 「초엄유고서」 후반부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헌종과 철종의 시대에 복초상인(復初上人)이 영호남 사이에서 태어났

는데, 초엄은 그의 호이다. 작가의 기풍을 진작시켰으니, 분위기를 휩쓴 것은 한 시대에 흔히 있는 일이 아닐진저! 그가 깨달은 본령을 캐보면 자술한 「삼화전」과 대략 같다. 지혜로운 자와 더불어 일소하며 도를 논 했는데, 여러 문인들과 널리 통했다. 만성 박치복에게서 경사를 듣고, 고환 강위에게서 시도를 들어 넓은 학문과 맑은 마음이 점점 알려졌다. 만년에 그들을 좇아 들어간 것이 스스로 집안의 보배로운 화두임을 알지 못함을 깨닫고 홀로 초연하게 초엄의 일가를 이루었으니 오백년 후세에 일위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상인은 무주(無住)를 마음에 간직하고 선강율(禪講律) 삼사를 표준으로 삼기를 어려워하며 호탕하게 한산과 습득, 태전과 임제스님 같은 기풍이 있었으니, 어찌 감히 손수 그의 시문을 엮으랴? 또 한 때 선가의 풍조가 상인의 호탕함을 달가워하지 않았고, 문자의 안목도 부족하여 상인의 시문이 연기처럼 흩어져 사람들 사이에 보존된 것이 겨우 한둘뿐이었다. 그런데 여기에 편집한 약간의 시문은 허다한 세월을 보낸 뒤 겨우 문인들의 옛 상자의 나머지에서 수습한 것이니 수십 편에 불과할 뿐이다. 아, 상인의 훌륭한 재주는 크게 세상을 구제하는 귀한 뗏목이 되지 못했고, 작게는 한림원에 등용되지 못했다. 이렇게 남은 시문마저 후배의 수집 목록에 다시 보이지 않는다면 마음에 둔들 무엇 소용이 있겠는가? 끝없이 안타까운 마음을 더욱 이길 수 없다.

또 여러 선사들에게서 상인의 말로가 기구하고 처량했다고 들었다. 하루도 따뜻한 방에 안주하지 않고 해산을 전전하며 두루 유랑했고, 흑금강산의 정상에 올라 새벽에 동해 일출을 보았으며, 백두산 천지를 혼자 거닐다 지팡이를 휘두르며 발을 씻고 목청껏 노래를 불렀으며, 가고 멈추기를 반복하다 궁벽한 사막에 이르러 하늘 바람 부는 돌 위에서 허물을 벗었다고 한다.

상인의 정신은 과연 우주 밖에 소요하는 것이었으니, 어찌 글씨를 쓰고 이슬을 읊조리는 미미한 시인들이 그 아량을 품평할 것인가? 상인과 나란한 시대에 해양 초의존자가 풍아의 이치를 깊이 얻어 사대부와 석학들 사이에서 시문을 주고받았는데, 혜원(慧遠)과 도잠(道潛)에 대한 고평처럼 혀가 닳도록 칭찬을 받았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는 시는 상인과 함께 같은 부류로 말할 수 있지만 문은 상인과 더불어 같을 수는 없다. 따라서 근고의 선가 문학계에서 상인을 맹주로 여겨야 부끄러움이 없을 것이다.³⁾

복초상인은 헌종과 철종 연간에 영호남 사이에서 태어났고, 초엄은 그의 호임을 알 수 있다.⁴⁾ 조선후기 선종의 타락한 기풍을 쇠신했고, 만성 박치복(1824~1894)과 고환 강위(1820~1884)에게서⁵⁾ 경사(經史)와 시도(詩道)를 각각 배워 명성을 얻었으며, 선가 규범에 얽매이지 않고 무주(無住)의 행각을 바탕으로 초엄 일가를 형성해 선종의 기풍을 쇠신하려 했지만 당시 선가의 부정적 시선 탓에 소신을 이루지 못해 전국을 방랑하다가 마침내 변방 사막에서 입적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초엄의 시문이 초의선사(1786~1866)를 능가할 정도였지만 제대로 인식되지 않아 거의 인멸될 지경에 놓인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여 유문을 겨우 모아 문집을 편집하게 되었고, 초엄을 선가의 문학계에서 맹주로 여겨야만 온당

3) 석전정호, 「초엄유고서」(『초엄유고』). “當於憲哲朝之際，復初上人生於湖嶺間。草廣，其號也 有振作者之風，靡然一世可不希有哉！原其悟達之本領，概如自述之「三花傳」。可與知者，一笑而道，及其旁通諸門。聽經史於朴晚惺致馥，聞詩道於姜古權璋，稍藉博雅之聲。晚年乃覺，從他門入者，不識自家珍之公案，夏夏獨造，超然成草廣之一家，得不爲後五百年作者之一位乎？然上人以無住爲懷，難可以禪講律三師爲標準，澹宕有寒拾顛濟之風，豈堪手編其詩若文？且一時禪流，不屑上人之坦蕩，又少文字眼，以故上人之詩若文，隨烟散滅，所存乎人間者，寔惟鳳毛之一二，然則茲編之略干，亦消許多歲月，僅收捏合於文人敗篋之餘，不過是數十殘篇而已。嗚呼！以若上人之良材，大不作濟世寶筏，小不試金馬玉堂。和此零綠殘瓊，不復見後進之蒐，存存亦何所用？尤不勝感惋無窮。且聞諸禪老，則上人之末路，崎嶇蒼涼，不能安於一日之煨室，落拓海山而周流，或登楓嶽之絕頂，曉觀浴日之滄瀛，獨步長白之天池，振錫濯足以浩歌，且行且止，於絕塞沙漠，蟬蛻於天風石上云爾。上人之神遊，果能逍遙於有物之表，豈足以雕蟲吟露之淺淺詩輩品其雅量也哉？上人之茲世，有海陽艸衣尊者，深得風雅之致，酬唱於搢紳碩學間，嘖嘖聞遠公寥公之高評。然以吾觀之，詩可與上人同壇，而文不與上人同日。則近古禪家詞壇，當以上人爲主盟，無愧矣。”

4) 초엄은 「聽雲長老像讚」(『초엄유고』 권1)에서 자신을 “行脚僧復初”이라고 했다. 청운장로는 초엄을 특별히 아낀 인물로, 필사자는 「次聽雲長老湖南見寄」(『초엄유고』 권2) 난두에서 “聽雲長老者，疑是霽峰上人”이라 하여 그를 제봉선사로 추정하였다. 그는 뛰어난 문장력으로 초의·해봉·초엄과 함께 이름이 나란했다(범해, 「제봉선백전」 <『동사열전』 권4> “文章聲名，與艸衣·海鵬·艸廣齊名.”)

5) 박치복과 강위는 매우 절친한 사이였는데, 강위의 「過丹城却寄朴晚醒」·「黃梅道中望朴晚醒山居」(『고환당수초』 권6)·「巖石樓和朴晚醒致馥」(『고환당수초』 권7) 시와 박치복의 「與姜韋玉璋」(『만성집』 권5) 참조.

할 것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석전의 「집초엄상인유고서」는 위의 글에 보이지 않는 새로운 정보를 제공한다. 초엄의 출생지는 영호남의 경계가 아닌 영남의 고성(固城)이고, 그 집안은 응천 박씨(朴氏)라 했다. 옥천사(玉泉寺)에서 득도(得度), 즉 머리를 깎고 고행의 길을 걸었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는 매천 황현(1855~1910)에게서 들은 것이라 했다.⁶⁾ 석전은 황현과 교류하며⁷⁾ 초엄의 인물됨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을 터인데, 황현이 생전에 초엄을 직접 만났는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황현이 두터이 종유한 신헌·신정희 부자와 초엄이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였으므로, 황현이 초엄에게 전해준 정보는 신빙성이 높다고 하겠다. 그럼에도 「초엄유고서」에서 초엄이 영호남 사이에서 태어난 것으로 기술한 부분은 여전히 석연하지 않은데, 경남 고성은 예나 지금이나 호남과 꽤나 먼 거리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초엄이 옥천사에서 득도했다라고 서술한 내용의 신빙성은 『초엄유고』에 수록된 「玉泉寺大雄殿上樑文」(권1)과 「題玉泉東庵」(권2)의 시문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확인되고, 신헌의 시 「贈玉泉寺僧采五 三首」(『신헌전집』권5)에서 더욱 뒷받침된다.⁸⁾

석전의 다른 글인 「상인명가근칭초엄초의」는 위의 두 편에 없는 초엄의 정체가 소개되어 있다.⁹⁾ 초의상인과 함께 명사로 칭송된 초엄상인은

6) 석전정호, 「輯草上上人遺稿序」(『석전문초』소재 『석림초』<31>). “當於憲哲朝之際, 有復初上人, 生於嶠南之固城, 其第凝川朴氏也. 得度于玉泉寺, 草上, 其號也. 鎬也, 聞諸梅泉黃公.”

7) 석전은 황현이 긴밀히 교류한 설유처명(雪乳處明 1858~1903)의 선문염송을 보고 법통을 이었으므로 두 사람은 설유대사를 매개로 자주 접했을 것으로 본다.

8) 하지만 현재 고성 옥천사에서 발간한 자료집(『연화옥천의 향기』, 2002)에는 초엄의 이름이 보이지 않는다.

9) 석전정호, 「上人名家近稱草上草衣」(『석전문초』소재 『석림수필』<14>). “憲哲之際, 固城玉泉寺草上人, 法名采五. 妙年學文于朴晚醒, 鍊詩于姜古權, 衆許爲名家. 有「唵匡山寺」云. 「紅梅深院綠蕉房, 委地輕陰取次長, 細雨欲飛人柳短, 廬山一碧佛軀涼者, 其詩之一斑也. ---其文有「智異山文殊庵記」·「妙香山內院庵記」, 皆名作也. 見其自敘「三花子傳」, 於『圓覺經』中, 悟得第一義諦, 若彼幻夢世事, 不足介

고성 옥천사의 승려로서 법명은 채오(采五)이고, 묘년(妙年)에 박만성과 강고환에게 배웠다고 했다. 또한 그가 지은 「음광산사」 시와 「지리산문수암기」·「묘향산내원암기」 글이 모두 명작이며, 『원각경』에서 절대적 진리를 깨달아 세상사에는 아예 마음을 두지 않았으며, 만년에는 통영에서 당시 수군절도사 신위당을 만나 곧바로 방외의 친교를 맺은 뒤 서울에까지 지속했으며, 천하를 쓸쓸히 주유하다가 결국 막북(漠北)¹⁰⁾에 건너가 생애를 마쳤다는 것이다. 그리고 초엄의 일가를 이룬 제자로 보연(普演)이 있다고 했다. 곧 초엄의 법명이 채오이고, 빼어난 시문으로 명사의 지위를 얻었으며, 신헌을 통영에서 만난 이후 서로 막역한 사이를 유지했으며, 제자 보연 등이 초엄일파를 형성한 사실이 새롭게 발견된다.

이 유용한 정보들 중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다. 첫째, 초엄상인의 법명 ‘采五’는 박치복과 강위의 시문에 나오는 ‘彩吾’, ‘獨悟’, ‘采吾’라는 인물과 동일한가 하는 점이다. 박치복은 彩吾가 어린 나이에 불법을 듣고 그 교리를 빠짐없이 터득하였고, 유학에도 능통하여 당대 사대부들과 더불어 시문의 조예를 보였으며, 학덕이 높은 승려라 자신은 그에게 도를 전해줄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극찬했다.¹¹⁾ 그리고 자신이 1871년경 서울의 신헌을 방문했을 때 彩吾가 과전에서 하안거 상태라

懷。——晚年優游山徑海際，放吟自笑，轉至統營，時制使申威堂，輒爲方外交已而，俱上洛中而分離。東躡毘盧峯頂，西上香山法王臺，北登常白峯等，上下天風，身世蒼涼。——遂渡漠北以終古。——余曾惘然其所從來，聞夫震應上人，則普演者，雙溪寺沙門，學詩乎草古權間，詩名藉藉云爾。” 참고로 『석림수필』은 1943년에 지은 것인데, 「有引」의 “癸未六月五日”을 『영호대종사어록』과 『석전정호스님 행장과 자료집』에서 1883년으로 잘못 풀이하였다.

10) 초엄의 입적 장소에 대해 석전정호는 「초엄유고서」에는 「絶塞沙漠」, 「집초엄상인유고서」에는 「窮荒絶塞」, 「상인명가근칭초엄초의」에는 「漠北」이라 하여 각기 다르게 표현했다. 하지만 모두 동일한 지역을 지칭한 용어로 대개 지금의 고비사막으로 추정하고 있다.

11) 박치복, 「送浮屠彩吾序」(『만성집』권11). “浮屠彩吾，妙年聞法得圓通旨。又欲博其趣而窮之，求孔氏書而濡染焉。與當世士大夫遊，甚詩甚文，蓋龍象之傑然者也。——彩吾而所謂道寄於杳茫荒忽，而非吾所謂以是傳之道也。”

가까운 곳에 있으면서도 만나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했고, 그해 겨울에 자신의 집을 찾아온 그와 인연을 계속 이어간 것을 다행으로 여겼다고 했다.¹²⁾ 채오는 박치복에게서 학문을 배웠지만 이미 탁월한 경지에 올랐음을 알 수 있다. 박치복이 말한 '彩吾'는 석전의 글에 비추어볼 때 초엄과 동일 인물로 간주해도 무방하리라 본다.

또한 강위의 시에도 '獨悟'와 '采吾' 명칭이 나온다. 「約復初上人至松桂庵繙經獨悟名」(『고환당수초』 권6) 시는 제목 자체에서 북초상인의 별명이 獨悟임을 알 수 있고, 그는 송계암에 주석하던 이 승려를 采吾라 하여 달리 부르고 있다.¹³⁾ 그는 북초상인을 만나러 세 번이나 송계암을 찾았으나 목적을 이루지 못했는데, 시의 협주를 통해 당시의 감회를 세 번이나 동산(洞山)에 오르고 아홉 번이나 투하산(投河山)에 간 것에 비유했다.¹⁴⁾ 이는 강위가 북초상인에게 시를 가르치기는 했지만 그의 득도 깊이에 경외심을 갖고 있었음을 암시한다. 이로써 보건대 '獨悟'나 '采吾'¹⁵⁾는 북초상인, 즉 초엄을 지칭하는 이명이라 규정할 수 있다.

둘째, 초엄이 박치복과 강위에게 학문을 수학한 시기를 '묘년'으로 내

12) 박치복, 「寄釋彩吾」(『만성집』 권7). “近拜威堂始知師結夏於果邑菟裘, 果與京武相接也. 睫上之眉近而不見, 尤爲罔然. ---冬間來訪我小齋, 與舊遊數人, 更續影緣, 切幸切幸.”

13) 강위, 「訪初公松桂庵」(『고환당수초』 권6). “問道采吾禪在否, 四山風露下諸天.”

14) 강위, 「松桂訪悟公不遇」(상동). “我行如爾爾如吾, 掛角羚羊跡有無, 夜半獨踰懸峙去, 滿山松桂聽相扶. 今訪悟爲三度矣, 所謂三上洞山, 九到投河, 豈謂是歟, 又踰懸峙, 有感作.” 시 속의 원주는 스승을 찾아 헤매는 구도의 행각이 진지하고 집요하고 아둔함을 의미한다.(김용옥, 『화두, 혜능과 세익스피어』, 통나무, 1998, 225쪽)

15) 석전정호도 장편의 자전적 시 「石顛詩鈔后自跋」(『석전시초』)에서 강위 시의 의경을 취하여 우리나라 선시의 계보를 거론하면서, “서악산 고승의 옛 성은 강씨 / 고환은 머리 돌려 눈썹 찌푸리며 읊었고/ 초의가 영주 지나자 완당이 일어났으며/ 채오가 도를 묻자 만성이 화락했지[西嶽高僧舊姓姜, 古權回首皺吟眉, 草衣過瀛老阮起, 采吾問道晚醒噓]”라 했다. 고승 관휴를 따르기 위해 고심을 거듭한 강위, 초의를 반갑게 맞이한 김정희, 박치복이 기쁘게 학문을 가르친 채오 세 사람이 선시의 높은 경지를 개척했다는 인식이다. 이를 통해 '采吾'가 초엄임을 다시 한 번 알 수 있다.

세운 부분이다. 묘년은 20세 안팎의 나이를 말하므로 초엄의 출생년도를 다소 짐작하게 한다. 초엄이 박치복에게 배운 시기는 명확히 드러나는 것이 없으므로 우선 유보할 수밖에 없다.¹⁶⁾ 그렇지만 초엄이 강위를 언제 만났는가를 파악할 수 있다면 그의 태어난 해가 어느 정도 밝혀지리라 본다. 여기서 초엄이 지은¹⁷⁾ 「고환거사의책발」은 이를 해명하는 좋은 자료가 된다. 이 글을 보면 초엄이 저작 당시를 기준으로 강위와 세 차례 만난 것으로 서술되어 있다.¹⁸⁾ 맨 처음 백두산 기슭에서 만나 옛 친구처럼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고, 금강산 영원동에서 다시 만나 산중에서 오랫동안 함께 지냈으며, 황매산에서 행각하고 있을 때 광려산을 지나가다 삼폭 근방에서 세 번째로 만나 발분의 저작 「의책」을 읽어보고 과격한 내용을 걱정했다고 했다.

먼저 초엄이 강위를 백두산과 금강산에서 두 차례 조우한 사실은 강위가 지은 세 편의 시제에서도¹⁹⁾ 곧장 드러난다. 시 제목 자체를 차례대로 풀이해보면 ‘常白山’에서 만난 ‘蛻翁’이 돌 위에서 참선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았고, 금강산에서는 ‘白上人’을 만나 금강산 구룡연에 함께 올랐으며, 영원동에 이르러 그와 헤어졌음을 알 수 있다. 시제 속의 상백산은 백두산의 이칭이고, 백상인의 ‘白’은 ‘常白山’의 준말이며, 태웅은 바로 초엄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는 초엄이 「의책」 발문에서 백두산과 금강산에서 강위를 두 번이나 만났다고 한 내용과 일치한다.

16) 『초엄유고』의 수록 시문에는 아쉽게도 박치복과 관련된 작품이 한 편도 없다.

17) 「고환거사의책발」(『고환당수초』문고 권4)의 작가가 초엄이라는 사실은 이 글이 무엇보다 『초엄유고』에도 수록되어 있고, 발문의 필명 저자인 ‘長白老人蛻翁’이 강위가 시제에 등장하는 ‘蛻翁’과 일치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작가 미상으로 남아 있었을 뿐 한 번도 거론되지 않았다.

18) 초엄, 「古歡居士擬策跋」(『초엄유고』권1). “始余遇於白頭之旒, 班荆而談, 色似甚喜. --- 後又遇於蓬萊之靈源洞, 共處山中既久. --- 且二十臘矣, 是秋, 余有黃梅之行, 路經匡廬, 忽又遇於三瀑之傍. --- 因得所著「擬策」, 驟閱一過. 未及深究, 然事理暢然, 詞采曄然, 蓋又世法中宏論也.”

19) 강위, 「常白山遇蛻公石上入定」·「同白上人至九龍淵」·「靈源洞別蛻公」(『고환당수초』시고 권2<말미여초>).

그렇다면 초엄이 강위를 백두산에서 최초로 만났다고 한 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가 하는 점이다. 강위는 스승인 추사 김정희가 1849년 제주에서 해배된 뒤 함께 상경하였는데,²⁰⁾ 32세 때인 1851년 7월 김정희가 함경도 북청으로 재차 유배됨에 그곳에서 즐こん 시종하다가 해가 바뀌자 스승의 허락을 받고는 혼자 수년간 가족을 내팽겨 둔 채 전국의 명승지를 두루 유람하고 돌아왔다.²¹⁾ 심지어 그는 4년 동안 세 번이나 금강산을 찾기도 했는데,²²⁾ 바로 이 무렵 시 짓는 일에 본격적으로 종사했던 것이다.²³⁾ 이 때 지은 시가 세간에 벌써 알려질 정도였다. 이는 초엄이 금강산에서 만난 한 승려에게서 얻어 본 작품이 강위의 오언절구 두 편이 백두산과 금강산을 제제로 한 시²⁴⁾라는 점에서도 직접 알 수 있다. 이처럼 강위가 명승 유람과 시 창작에 몰두한 시기에²⁵⁾ 초엄이 백두산과 금강산에서 그를 연거푸 만나 시를 배웠던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20) 강위는 10여세에 상경하여 근 20년을 정원용의 손자 정건조(1823~1881) 집에서 함께 지내다가 1842년에는 민노행의 문인이 되었고, 곧이어 민노행의 유언에 따라 1846년 제주도에 가서 추사의 제자가 되었다.

21) 정건조, 「序」(『고환당수초』시고). “及金公謫北靑, 君又從往. 踰年, 君乞遂踐初志, 金公許之. 乃得浮由四際, 盡覽諸名勝, 數年而畢, 及歸.”

강위, 「自序」(『고환당수초』서). “蓋余于往春三月, 偶得縱步, 自曷懶甸, 放于辰韓四千里餘. ---親老不養, 則爲不肖, 有家不治生, 則爲無術. ---三年癸丑(1853)初春十九夕, 微醉書于臨淮之古歡堂.”

22) 강위, 「登楓嶽永郎峰」(『고환당수초』시고 권2). “四年三度到蓬萊.”

23) 황옥, 「序」(『고환당수초』시고). “時有所得, 輒於詩乎發之, 自云三十後, 始從事於此.”

24) 초엄, 「고환거사의책발」(상동). “有僧竊記所諷二小詩, 以告余. 詩曰 ‘幾度欲爲僧, 見僧心復慢, 忽瞻常白峰, 稽首大羅漢’, ‘欲捉九條龍, 行窮八潭趾, 此物已神變, 化作蓬萊水’ 인용문 속 강위의 ‘小詩’는 5언절구를 말하고, 『고환당수초』시고 권2에 수록된 두 편 중 첫 번째 작품의 시제는 「望蓋馬山」이고, 두 번째의 시제는 「同白上上人至九龍淵」이다.

25) 유흥준은 추사의 일생 중 제주도에 돌아온 뒤의 2년 반을 강상(江上)시절로 일컬었는데, 이 기간은 거의 공백으로 비어 있고 조사된 것도, 알려진 것도 거의 없다고 하였다(『완당평전』2, 학고재, 2002, 527~8쪽). 이 강상시절에 강위는 추사를 가까이 모시면서 백두산을 유람했을 것이라는 가정이 성립한다면, 초엄이 강위를 만난 시기를 1851년 이전으로 앞당길 수 있다.

초엄이 강위로부터 시문을 배운 묘년은 적어도 1852년 이후가 아닐까 싶다. 초엄은 강위나 박치복과 나이 차이가 많지 않으나 그들의 학문적 깊이와 심오한 인격에 매료되어 배움을 청했던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초엄은 삼폭 근처에서 강위를 세 번째로 만나 그의 「의책」에 대해 소감을 주고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의책(원제: 擬三政揀弊策)」은 강위가 1862년 삼남 민란 후 서울에 있을 때²⁶⁾ 정건조의 강권으로 지은 것인데, 그가 과격한 문구를 문제 삼아 수정할 것을 요구하자 몰래 불살라버리고는 이내 바닷가로 돌아왔다고 했다.²⁷⁾ 초엄은 웃으면서 「의책」의 내용이 결국 강위에게 누가 될 것임을 염려하자, 그는 크게 탄식하며 초엄의 우려에 동조한 뒤 자신의 책문이 오래 전에 벌써 거절당한 것이라고 대답했다.²⁸⁾

강위가 「의책」을 작성한 1862년은 초엄의 출생년도를 추정하게 하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초엄이 강위를 만났다고 한 ‘二十臘’의 자의를 알면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臘’은 法臘의 준말로 축자적 의미는 초엄이 출가하여 불가에 귀의한 해를 뜻한다고 본다.²⁹⁾ 그리고 ‘二十’은 출가한 이후 20년이 되는 해를 함의한다. 곧 1862년이 범람 20년 째 되는 해라고 할 때, 초엄이 고성 옥천사로 귀의한 연도를 역산하면 1843년

26) 강위는 이안(현 안의)과 무주를 오가며 살다가 1862년 가을 삼남민란 때에는 그들의 격문 작성 요구를 거절하여 무주의 집이 소실되는 화를 당함으로써 부득이 몸을 빼내어 일시 상경했던 것이다.

27) 강위, 「의삼정구폐책」 <自序> (『고환당수초』 문초 권4). “既卒篇獻之, 閣學(鄭健朝)瀏誦, 良久曰 鱗甲太多, 姑未可以示人. 少加刪潤, 則當更佳矣. 敬應曰 諾. 余既神竭思涸, 至數日不能更易, 又歸思怱怱, 不可復忍. 輒取酒以澆筆神, 痛傾三四甌, 乘醉一讀, 私焚於屏處, 不告而歸.”

28) 초엄, 「고환거사의책발」(상동). “余又哂曰 “頭陀竟爲此念所累也.” 太息曰 “有是哉, 然久已謝遣之矣.” 초엄이 얻어 본 「의책」은 강위가 불태웠다고 한 원본이 아니라 이후 그가 따로 작성해 보관해 있던 것으로 보인다.

29) 만일 ‘二十臘’을 범람으로 보지 않고 속세의 나이로 해석한다면 초엄은 1843년에 출생한 것이 되고, 여남은 나이에 강위를 백두산 기슭에서 처음 만나 교류하며 학문을 논했다는 논리가 성립되므로 상식상으로 납득하기 어렵게 된다.

이 된다. 아울러 「삼화전」에서 초엄이 16세에 출가를 결행했다고 했으므로,³⁰⁾ 그가 출생한 해를 추리해보면 1828년으로 산정할 수 있게 된다. 초엄의 출생 시기를 이렇게 본다면 석전정호가 「초엄유고서」에서 현종과 철종 시대에 초엄이 태어났다고 한 사실과는 서로 맥락이 통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초엄은 두 임금의 재위 기간 세상에 두각을 나타냈다고 해석하는 편이 타당할 것이다.³¹⁾

셋째, 초엄이 만년에 통영에서 수군절도사 신위당(申威堂)을 만나 방외의 친교[方外交]를 나눈 뒤 서울에까지 그 관계가 지속되었다고 했다. 덧붙여 신현은 북초상인이 통영 입소에 있는 자신을 방문하였고, 그 후 몇 년이 경과한 뒤 담원정에서 그를 다시 만나 시를 지어주었다고 했다.³²⁾ 문맥으로 볼 때 방외의 친교는 아마도 17살의 나이 차이와 학문 성향의 다름에 전혀 개의치 않고 기꺼이 허교했다는 함의로 풀이된다. 그리고 당시 신현을 만났을 때 초엄의 나이가 35살 정도로 추산됨에도 굳이 ‘만년’이라고 서술한 것은 다름 아니라 신현을 처음 만난 시기가 비교적 늦은 나이였다는 뜻을 함축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을 종합해 초엄의 생애를 간략히 재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1828년 경 영남의 고성에서 박씨 가문의 아들로 출생했다. 고성 옥천사에 득도했고, 법호는 초엄(草廣)·법명은 채오(采五)이며, 별칭으로 독오(獨悟)·채오(采吾, 彩吾) 등을 썼다. 묘년 즉 1852년 이후 박치복의 문하에서 경사와 글을, 강위로부터 시를 각각 본격적으로 익혀 당대에 벌써 거벽 혹은 명가라는 명성을 얻었고, 보연(普淵) 등의 제자를 두어 초엄 일가를 형성했다. 1862년 무렵 통제영에서 통제사 신현을 만나 방외의 친교

30) 초엄, 「삼화전」. “十六脫白，明年，海隅小山，供南海大士像，凡七日矣。”

31) 석전정호가 「상인명가근칭초엄초의」에서 “憲哲之際，固城玉泉寺草廣上人。---衆許爲名家.”라고 한 표현이 오히려 적절하다고 하겠다. 문맥을 보자면 초엄이 현종(1835~1849 재위)과 철종(1850~1863 재위) 시대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이 시기에 여러 사람들에게 명가로 인정되었다는 뜻이다.

32) 신현은 「澹遠亭僧復初見訪拈韻贈行」(『신현전집』 권6<금당초고>) 시에 “復初訪余於統營住所，今又來訪於數年之後.”라는 협주를 달았다.

를 가졌고, 이해 가을에 강위를 세 번째로 만나 「의책」의 발문을 지었다. 『원각경』등 불교 경전을 읽고 절대적 진리를 완전히 깨달았으나 속세와 선가에서 소용되지 않아 내내 고독하게 생활했으며, 말년에는 금강산과 묘향산과 백두산 등 전국 산천을 주유하며 무아(無我)의 대 자유를 즐기다가 1880년대 이후 멀고먼 변방의 고비 사막에서 입적했다.³³⁾

Ⅲ. 「삼화전」 등장인물의 역사성

「삼화전」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실체는 작품 해석에 중요한 관건이 된다. 초엄선사가 자신의 생애를 취사선택하여 작품에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작가의 외적 정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삼화전」 서두에 “스스로 해동상인이라 했는데, 고향과 성씨를 알지 못한다.”³⁴⁾ 라고 하여 출생과 관련된 어떠한 정보도 배제해버렸다. 이는 독자의 선입견이 개입될 여지를 처음부터 차단하고자 한 서술 전략으로 보인다. 주인공의 출신이 모호한 이상 그를 둘러싼 보조인물들의 정체도 감춰지고 말았다.

그런데 기존 연구에서 김승호는 「삼화전」을 “성리학적 담론으로서 문학적 수사나 서사를 수용하여 탄생한 의인소설과 내용상 수심, 득도의 역정을 절실하게 포집하고 있는 「삼화전」은 여러모로 상통한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³⁵⁾고 하여 등장인물 모두를 허구 인물로 포

33) 초엄의 입적 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지리산문수암기」와 「청운장로상찬」을 황사년(黃蛇年, 1869)에 지었고, 설파대사(雪坡大師 1707~1791)가 1774년 영각사에서 화엄경 책판을 제작하여 장관각에 보관한 후 100여 년이 지났다[眞是深於華嚴從而演之----大師後百餘年.](『초엄유고』권1 「靈覺寺華嚴閣改瓦募緣文」)라는 기록을 볼 때 적어도 1870년대까지는 생존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설파에 관해서는 채제공의 「雪坡大師碑銘」(『번암집』권57) 참조.

34) 「삼화전」. “自謂海東上人, 不知其爲州里姓氏.”

35) 김승호, 앞의 논문, 23쪽.

함시켰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심경호는 “삼화를 중심에 두고 검은 학·향기·대나무와의 이야기를 풀어나가는데”³⁶⁾라 하여 서사 속의 보조 인물들을 가공의 자연대상물로 치환시켜 명시적으로 거명했다. 두 편의 연구 성과는 모두 외적 작가에 대한 정보를 배제한 채 작중 인물의 성격을 독자적으로 해석한 것인데, 필자가 앞장에서 논의한 작가 정보를 바탕으로 그 타당성을 검증해보고자 한다.

1. 삼화(三花)

초엄선사는 '나' 대신에 삼인칭 주인공 '삼화'를 내세웠다. 삼화를 주인공의 이름으로 명명한 것은 유래가 있다. 「삼화전」의 맨 마지막에 “삼화가 여산에 머물 때 꿈에 한 대인이 나타나 ‘三花禪寺’ 네 글자를 주었는데, 삼화는 그것이 암시하는 바를 몰랐다. 시우산(施愚山)의 시를 읽다가 소림사 작품을 보니 ‘늙은 삼화수가 아득한 안개 사이로 보인다’라고 하는 시구가 있었는데, 매우 기이하게 여겨 삼화라 자칭했다.”³⁷⁾라는 협주가 있다. 시우산의 작품에 쓰인 시어 ‘삼화’를 인용해 자신의 이름으로 대응했음을 확실하게 밝혔다.

‘삼화’라는 명칭이 시운장(施閨章 1618~1683)의 「宿少林寺」 시에서 연유한 것이므로, 해당 시를 분석해보면 명명한 이유를 모색해볼 수 있다. 이를 위해 그의 『학여당문집』에 실린 시 전편을 인용해보기로 한다.³⁸⁾

산허리 걸린 석양이 솔 대문을 비추니	夕陽半嶺照松關
사찰이 아늑히 자리 잡은 소실산이로다	初地幽棲少室山
절 경쇠는 절로 울리고 숲새들 고요한데	僧磬自鳴林鳥靜

36) 심경호, 앞의 글, 421쪽.

37) 「삼화전」. “花住廬山時, 夢一大人, 以‘三花禪寺’四字, 贈之, 花不知其爲旨. 及讀施愚山詩, 見‘少林寺’作, 有‘古樹三花香靄間’之句, 甚奇之, 自稱三花.”

38) 심경호의 『나는 어떤 사람인가』(422~423쪽)에서 재인용.

하늘 바람 불지 않으니 돌미나리 한가하다	天風不動石蘿閒
아찔한 오유암은 푸른 하늘 너머에 있고	懸巖五乳靑冥外
늙은 삼화수가 아득한 안개 사이로 보인다	古樹三花香靄間
듣건대 갈대 꺾은 사람은 멀리 떠나가면서	聞道折蘆人去遠
날린 석장이 늘 흰 구름 띠고 돌아갔다네	錫飛常帶白雲還

산허리에 걸린 석양이 솔 대문을 비추어 사찰이 아늑하게 보이는 정경을 묘사했다. 하늘 바람이 불지 않지만 절의 경쇠가 절로 울리고 숲새들이 소리마져 잠잠하여 고즈넉한 저녁 산사의 모습이 떠오른다. 산사는 바로 소림사(少林寺)를 말하는데, 흔히 달마대사가 창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소림사는 하남성 숭산(嵩山)의 소실봉(少室峯) 중턱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름 자체가 소실봉의 북쪽 숲속에 자리 잡은 절이라는 뜻이다. 달마대사는 불법을 전파하기 위해 인도에서 갈대를 꺾어 타고 양자강을 건너와 숭산의 오유암, 즉 오유봉 위에 있는 석굴에서 9년 동안 면벽 수도했고, 후에 신발만 남기고 사라졌다고 한다. 오유봉과 짝이 되는 시어 ‘삼화’는 일 년에 꽃이 세 번 핀다고 하는 삼화수(三華樹)의 약칭이고, 대개 증별의 신표로 쓰이는 시적 상관물이다. 안개 사이로 아득히 보이는 삼화수는 갈대 꺾은 사람, 곧 달마대사가 소림사를 떠난 일을 연상시킨다. 이처럼 중국 선종의 시조가 된 달마와 연관된 고사를 적합하게 원용해 소림사의 경치와 연혁에 대한 시적 정취를 거두고 있다.

「삼화전」의 주인공이 ‘三花’로 자칭하게 된 취지는 시우산의 시를 활용해 설명할 수 있겠다. 삼화는 ‘삼화수’의 준말일 뿐 의인화된 ‘세 송이 꽃’이 아니다. 작품에서 꽃의 고유한 성질을 활용해 주인공 삼화의 특성을 묘사한 예를 전혀 찾을 수 없고, 「삼화전」이 일명 「三花子傳」³⁹⁾으로 불린 데서도 삼화가 의인화되지 않았음을 짐작하게 한다. 그렇다면 삼화수의 자의는 작품의 서술 층위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시우산 시의 해석

39) 석전정호, 「상인명가근칭초엄초의」. “見其自敍「三花子傳」, 於『圓覺經』中, 悟得第一義諦,”

에서 보듯이 달마대사는 소실산에 소림사를 창건하여 선종의 개조가 되었다. 유사한 논법으로 「삼화전」에서 한 대인이 꿈을 매개로 '三花' 이름을 제시한 것은 주인공에게 심오한 이치를 깨달아 불교계 개신과 사찰 연기(緣起)의 한 주체로서 소명의식을 자각하도록 암시한 것으로서 의의가 있다.

그리고 작품 외적인 측면에서 어떤 대인과 초엄의 관계를 추적하면 삼화수 계시의 내재적 의미가 부각될 것인데, 이와 관련하여 초엄의 「금원산삼화선사신건상량문」은 요긴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⁴⁰⁾ 이 기문에 도 초엄이 스스로 부기한 협주가 있는데,⁴¹⁾ 이를 「삼화전」 말미의 원주와 비교해 보면 전체의 자구가 거의 동일함을 알게 된다. 특별히 다른 점이 있다면 「삼화전」의 '一大人'이 기문에서는 '威堂夫子'로 대치되었고, '自稱三花'라는 글자가 생략된 정도이다. 협주의 문맥 상 초엄이 시우산사의 취지를 간파했다는 것은 위당부자가 제시한 꿈의 맥락을 이해했다는 말이다. 곧 삼화수는 초엄이 선종의 현풍(玄風)을 진작시키기 위해 노력했고, 분발심을 발휘해 실제 금원산에 삼화선사를 새로 창건한 사실과 연계된다. 초엄의 사찰 창건은 해당 상량문을 근거로 단정해도 별 무리가 없겠으나, 다만 지금으로서는 흔적이 사라진 절의 위치를 비정할 수 없어 아쉬울 따름이다. 이처럼 초엄의 불교 혁신과 사찰 건립에 큰 영향을 준 위당부자의 인물됨은 이어서 검토할 현학관선생을 통해 그 실체가 밝혀질 것이다.

40) 초엄은 꿈을 통해 사찰 연기의 종교 체험을 한 셈인데, 꿈은 흔히 불가전에서 종교의 신비체험과 문학적 감동, 거기에다 객관적 세계로 인지될 수 있도록 하는 서사적 장치의 하나로 채택된다.(김승호, 『한국승전문학의 연구』, 민족사, 1992, 105쪽)

41) 초엄, 「金猿山三花禪寺新建上樑文」(『초엄유고』 권1)의 원주. “在廬山時, 夢威堂夫子, 以‘三花禪寺’四字, 贈之. 不知其爲旨, 及讀施愚山詩, 見‘少林寺’作, 有‘古樹三花香鬪間, 甚奇之.”

2. 현학관선생(玄鶴館先生)

「삼화전」에서 현학관선생은 삼화의 성격 변화, 보조인물과의 관계에서 주동적 역할을 담당한다. 삼화는 ‘方二十時’에 삼도의 원수 현학관선생을 만났다고 했는데, 당시 현학관선생은 백성들에게 위엄을 보이고 덕을 베풀어서 부처로 받들어지고 있었고, 선비 가운데 재능이 있으면서 바닷가에 은거해 있는 자들도 그를 본받았다고 서술했다.⁴²⁾ 초임은 이러한 현학관선생을 만나서 당당한 기운을 펼쳐 그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는가 하면 장차 ‘팽불팽조(烹佛烹祖)’의 선승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칭찬을 받았다.⁴³⁾ 또 현학관선생과 시를 논하면서 정신이 홀연히 초연해지는 신비로운 체험을 함으로써,⁴⁴⁾ 삼화는 구도의 과정에 새로운 전기를 맞이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현학관선생은 누구를 지칭한 것인가? 서술 내부에서는 좀처럼 갈피를 잡기 어려운 인물이나, 의외로 강위의 「무학편기정현학관」 시가 결정적인 실마리를 제공한다. 이 시는 현학관선생의 요청에 의해 지은 것인데,⁴⁵⁾ 원문을 보면 시제 아래 “威堂勻丈朱溪居停時樓名”이라는

42) 초임, 「삼화전」(『초임유고』 권1). “方二十時, 走至智異山中, 以平日志爲文. 一一時玄鶴館先生爲三路帥, 威德百姓, 百姓奉之爲佛. 士之有才, 而隱於海者, 亦得而効之.”

43) 「삼화전」. “隨其辨難, 志氣不縮, 公甚愛之. 使之出入帳中, 飲食若家人, 又不惜秘藏, 而勸讀焉. 語人曰 此子行將烹佛烹祖.” 팽불팽조는 살불살조(殺佛殺祖)라고도 일컫는데, 마음에서 나타나는 경계인 ‘佛祖’를 삶아버리는 일이다. 자신의 공부 가 무르익어 부처님과 조사스님의 경지를 얻었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에 안주하지 말고 그 경계마저 뛰어넘으라는 주문이다. 무명과 탐욕이 깃든 ‘부처님이란 경계’까지도 죽일 수 있는 이런 안목이 열려야 해탈을 이룰 수 있다.(임제선사, 『임제어록』〈示衆〉. “逢佛殺佛, 逢祖殺祖, 逢羅漢殺羅漢, 逢父母殺父母, 逢親眷殺親眷, 始得解脫.”)

44) 「삼화전」. “公與花論詩, 往往參以禪理, 至論趙松雪詩, ‘花間如何是滿几香?’ 則曰 ‘千佛光明自性中, 衆生得之爲自有. 直下花之神思, 忽超然.’”

45) 강위, 「舞鶴篇寄呈玄鶴館」, 『고환당수초』시고 권4<금회창수집>. “先生意惜過支公, 教兒仍成玄鶴篇”라는 시구 참조.

협주를 붙여놓았다. 협주의 '威堂'은 삼화에게 계시를 내린 한 대인, 즉 '威堂夫子'와 동일한 인물이다. 바로 위당은 현학관선생과 두루 교유하였고, '勻丈'⁴⁶⁾은 위당의 경칭이며, '朱溪'는 전북 무주의 고호이며, '居停'은 귀양 간 사람이 머무는 곳이라는 뜻이다. 곧 '현학관'은 위당이 무주에 적거할 때 머물던 누정의 명칭이고, 위당을 대신하는 경칭임을 알 수 있다.

위당이 조선후기의 역사적 존재라면, 그는 강위와 긴밀히 교유했던 인물이 되어야 한다. 여기서 호가 위당인 신현(申愼 1811~1884)을 거론할 수 있다. 신현은 철종 즉위 직후인 1849년 8월에 안동김씨 일파에게 배척을 받아 전라도 고흥의 녹도에 유배된 뒤 1853년 감형되어 무주로 이배되었고, 1854년 이후로는 무주의 서파(西陂)에 이거하여 살다가 1857년 정월 사면되어 정계에 복귀하였다.

한편 강위는 생계가 여의치 않아 가족을 이끌고 1854년 영호남 경계의 첩첩 산중인 주계(현 무주)로 이거하였는데,⁴⁷⁾ 아무 인연이 없던 이곳을 택한 것은 추사의 동문제자인 선배 신현에게 의지하기 위해서였을 것으로 보고 있다.⁴⁸⁾ 당시 강위는 무주에 살던 신현을 자주 방문하여 종유하였는데, 서파·금회·북고사·호계 등지에서 신현 부자들과 함께 여러 편의 시를 지었다.⁴⁹⁾ 특히 신현의 32수 연작시 「西坡雜詠」 목록에

46) 勻丈의 '勻'은 균(鈞)과 같은 뜻으로 재상 또는 상관에게 붙이는 경칭으로 주로 편지글에 사용된다. 『시경』 「대아」 <절남산>에 “秉國之鈞，四方是維”라 하였다.

47) 정건조, 「序」(『고환당수초』서). “乃得浮由四際，盡覽諸名勝，數年而畢。及歸，無所得食，不得已挈眷，寓於湖嶺間萬山中。” 강위는 1870년대 초반까지도 계속 덕유산 주변에 거처를 정해 머문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초엄이 「의책」 발문을 지을 당시 강위는 삼폭에 초간모옥을 손수 지어 아들과 함께 지냈고(『고환거사의 책발』, “指樹間小茆茨曰‘是余所住也，余遂造焉。松攤竹屋，蕭洒有仙致，具黍餉余，見子焉’”), 또 그가 1866년 「의책」의 자서를 쓴 곳이 광려산의 석실이며, 그의 가족이 1873년까지 안의에 살았다는 증거가 있으며(주승택, 『조선말기 한문학과 강위의 위상』, 『한문학과 근대문학』, 태학사, 2009, 249쪽), 1870~3년까지 무주에서 지은 시(『고환당수초』시고 권8~9 참조)가 많기 때문이다.

48) 주승택, 『조선말기 한문학과 강위의 위상』(상동), 251쪽.

들어있는 ‘玄鶴館’ 시제는 현학관이 위당 신헌임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가 된다.⁵⁰⁾

그렇다면 삼화가 현학관선생을 만났다고 한 ‘方二十時’는 언제로 볼 것인가 하는 점이다. 여기서 ‘時’자의 해석이 핵심을 이루는데, 그 의미는 출생 이후 20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불가에 귀의한 지 20년째 되는 해로 풀이된다. 이는 앞에서 본 ‘臘’의 경우처럼 동일한 자의구조를 갖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삼화전』에서 현학관선생이 삼도의 원수로서 선정을 베풀어 백성들이나 은둔한 선비들에게까지 존경을 받았고, 또한 실제 통제사 신헌은 복장(福將)이라는 명성을 얻었다.⁵¹⁾ 이런 평가는 통제사 직임을 상당 기간 수행한 뒤에 비로소 내려질법한 일로 간주되므로 잠정적이거나 해당 시점을 1862년으로 잡아보고자 한다. 따라서 초임이 16세 때 탈백(脫白)했다고 하는, 즉 불가에 입문한 시기는 1843년으로 헤아릴 수 있고, 그로부터 20년 뒤에 비로소 신헌을 만났다고 본다. 한편 이 무렵 초임은 통영에서 신헌과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있던 강위를⁵²⁾ 대면할 기회가 있었으나 사정이 여의치 못해 서로 만나지는 못했

49) 강위의 『고환당수초』시고 권4<금회창수집> 중 「謁威堂台丈歸路醉甚」, 「中威堂台丈寓居西陂專餽酒且惠以詩次韻奉酬」, 「山池荷花盛開申三琴·小琴贊熙·權圭園詞同賞」 시와 신헌의 『신헌전집』상 권1<서과집> 목록과 <서과잡영> 중 「十月十七日同樂熙步出至北固寺偶吟邀李公器晚在·姜慈妃元浩」, 「自北固寺因與公器·慈妃同至琴洞拈韻叙懷更用前韻」, 「六月十七日夜月色甚明因與爽熙·贊熙步出溪邊有懷慈妃口拈二絕」, 「溪上待慈妃」, 「秋七月既望與慈妃·樂熙·贊熙同舟泛虎溪拈韻共賦」 등의 시제 참조.

50) 『신헌전집』상권의 <신대장군시집총목>(p.233)에 「玄鶴館」이 들어있지만 원시는 수록되지 않았다. ‘西坡’는 신헌이 1855년 여름 무주부 운교(雲橋)에서 십리 떨어진 시냇가의 ‘大村’(현 무주읍 대차리)으로 옮겨 살면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쓴 필명이다.(『西坡記』, 『신헌전집』상권, 39~40쪽)

51) 1861년 1월 12일부터 1862년 12월 27일까지 제 187대 삼도수군통제사를 지낸 신헌이 통영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은 일은 황현의 증언에서도 확인된다.(『매천야록』권1 하. “其留心邊寄, 以奉公爲務者, 在近世惟李膺緒一人而已. 營之人稱, 李某後有三統使, 蔡東健智將也, 金鍵威將也, 申櫛福將也.”)

52) 강위는 통제영에서 신헌을 모시고 배를 타고 놀거나 수항루·강한루 등에서 시

던 것이다.

신헌이 통제사 시절에도 지인들에게 '현학관선생'으로 계속 불렸는지 아니면 「삼화전」에서 옛날의 칭호를 그대로 쓴 것인지는 단정하기 어렵다. 여하튼 현학관선생은 신헌의 별호로 '학'의 의인화가 될 수 없음은 자명해졌다. 한편 삼화가 현학관선생을 배알하게 된 계기는 그의 아들 소금공(小琴公)과의 인연을 통해서 가능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소금공이 누구인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3. 소금공(小琴公)

「삼화전」에서 삼화는 지리산과 가까운 황매산에 있을 때 마침 연화봉 아래에서 소금공을 만나 서너 날 머물다 그의 인도로 현학관선생을 소개받았으며, '小琴'의 신분을 현학관선생의 아들이라고 서술했다.⁵³⁾ 현학관선생, 즉 신헌의 아들로 小琴을 호로 쓴 이는 서자 찬희(贊熙)가 있다.⁵⁴⁾ 그는 부친이 자찬한 가족 내력에서마저 서자 탓으로 등재되지 못했지만,⁵⁵⁾ 부사과(1864)·훈련원 주부(1869)·훈련원 참정(1871)·무위

를 지었으며, 뒤에서 다룰 신헌의 아들인 향농과도 세병관·수향루 등지를 다니며 여러 편을 시를 주고받았을 뿐만 아니라 향농의 동생인 신락희와도 수창했다. 『고환당수초』시고 권7<유양만상집>에 실린 「水點日謁統使申威堂應尙書舟次有韻和呈」, 「正月望夜陪統使至西橋還受降樓命韻和呈」, 「江漢樓和呈統使申威堂尙書」, 「同申香農正熙明府登洗兵館」, 「同申三琴樂熙與海上諸詞人巡城至湖上齋」, 「香農明府携余與高南芋配厚·徐蕙史應禹·朴小蕉啓錫登受降樓」 시와 『신헌전집』상 권1<통제집>의 「次姜慈記柳南嶠壘二四亭春眺韻」, 「次贈慈記」 시제 참조.

53) 「삼화전」. “三花自黃梅來, 適遇公之嗣小琴公於蓮花峰下, 爲之留數日且去, 被小琴公引而與之, 俱謁公帳下.” 여기서 ‘公之嗣’의 ‘嗣’는 공의 후계자가 아니라 아들의 뜻이다.

54) 강위의 「山池荷花盛開申三琴小琴贊熙權圭園嗣同賞」(『고환당수초』시고 권4<금회창수집>) 시에서 '小琴'이 신찬희의 호임을 알 수 있고, 윤용선의 「報國崇祿大夫判中樞府事申公諡狀」(『심행일기』 부록, 신헌 지음/김종학 옮김, 푸른역사, 2010, 349쪽)에서 “庶男贊熙, 今郡守”라 했다.

55) 신헌이 1871년에 지은 「六代祖進士公墓表」(『신헌전집』권9<관암은휴고>)에서 “郡守義直男櫛今輔國兼兵判訓將, 櫛男正熙今加善右尹, 夷熙今左承旨, 樂熙今郡

영 초관(1882)·수문장(1892)·연일현감(1893)·부평군수(1896~1900)·증추원 의관(1903) 등의 관직을 지낸 이력을 『조선왕조실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부친이 통제사로 지낼 때 고성(高城)의 연화산(蓮花山) 아래에 거처를 정하고 학문에 몰두하면서 부친을 수시로 모셨던 듯하다.

「삼화전」의 서술 충위를 보면 소금공은 삼화와 그의 부친을 매개하는 정도로 그치고 삼화의 구도 행각에는 별달리 참여를 하지 못했다. 소금공의 작중 역할에서 비중이 낮기는 하지만 그가 없었다면 삼화가 현학관선생을 만나는 중점 서사를 전개해나갈 수 없는 구조이므로 조금이라도 간과할 수 없는 인물이다. 이처럼 소금공은 신현의 서자인 신찬희로 역사적 실체가 분명히 드러났다. 따라서 소금공은 기존의 글에서 언급한 것처럼 현학관선생의 ‘제자’나 ‘적통’의 관계가 아니며, 아울러 의인화된 ‘소나무’로 결코 치환시켜 해석할 수 없음을 알게 된다.

4. 향농선생(香農先生)

「삼화전」에서 화자는 향농선생에 대해 현학관선생의 첫째 아들로 하늘로부터 자질을 물려받아 심오한 철리(哲理)를 깨달은 사람으로 묘사했다.⁵⁶⁾ 삼화는 자신의 재능을 인정해준 그와 산수를 오가며 시를 창작하면서 『화엄경』의 요체를 익히는 한편 향농선생의 시를 듣고 참선의 올바른 안목을 배워 홀연 미혹함을 깨쳤다고 했다.⁵⁷⁾

삼화의 구도 행각에 크게 기여한 향농선생이 실재한 인물이라면 어떤 성격의 소유자였나? 향농선생은 통영에서 현학관선생을 시종한 것으로 보이는데, ‘香農’은 바로 신현의 장남인 정희(正熙 1833~1895. 자 元中)

守.”라 하였는데, 신찬희의 이름은 보이지 않는다.

56) 「삼화전」, “公之第一嗣香農先生, 天資出人玄悟.” 여기서 ‘公之第一嗣’의 ‘嗣’는 소금공의 예와 마찬가지로 후계자나 수제자가 아니라 아들의 뜻이다.

57) 「삼화전」, “有文章, 以花爲大人所愛, 與之遊海山之間, 有佳句則許之, 誰教乞食歌姬院, 好去題詩選佛堂, 是其一也. 花因聞先生舊作一句 ‘一念不生無處覓, 何來驀地數聲鐘’, 忽又開迷.”

의 호이다. 향농은 일찍이 아버지의 영향으로 정약용의 사상에 접했고, 무과에 급제하여 동부승지를 비롯하여 어영대장·훈련대장·공조판서·한성부판윤을 거쳐 1895년 강화유수를 끝으로 벼슬을 마쳤다. 1882년에는 임오군란에 대한 문책으로 그해 7월 영광군 입자도에 유배되었는데, 1878년 이후 신현·신정희 부자와 교분을 나누었던 황현은 1883년 유배지까지 찾아가 그를 위로하기도 했다.⁵⁸⁾ 그리고 1893년 동학교도들이 상경하여 경복궁 광화문 앞에서 교조신원을 요구하며 복합 상소를 올리자 그들의 상경을 사전에 막지 못한 책임을 지고 한성부윤직에서 물러난 적이 있다. 그의 아들 경균은 1894년 고성부사에 제수되었으며, 사위는 병조참판을 지낸 심기택(1826~1895)의 아들이다.⁵⁹⁾

한편 그와 평소 가까이 지낸 박문호(朴文鎬)⁶⁰⁾는 향농이 무과 출신이지만 천성적으로 문예적 자질이 뛰어났다고 증언했다. 향농의 붓글씨는 천마가 하늘을 나는 것처럼 호탕한 기세였고, 특히 식자들에게서 시풍이 선리(禪理)에 가깝다는 평을 들었다는 것이다.⁶¹⁾ 특히 여러 선비들이 이

58) 황원의 「先兄梅泉公事行零錄」(『매천집』권수. “在京師時，游於申公威堂·香農父子之間。威堂公善棋，嘗要公對局，公曰‘聞公好退數’，玆不願對局。申公曰‘吾於君，誓不退數’，公遂應之，連勝數局而一不假以退數。此雖小事，亦可見公之不挫威勢之一端也”)과 『매천집』권1에 실린 황현의 「題申香農元戎正熙詩卷後」·「同朴壺山李丹農建初陪香農元戎小飲」·「將往智島訪香農公謫居雨中過鶴橋作」 시와 『매천야록』이 참고가 된다.

59) 전우, 「雲稼沈公墓誌銘」(『간재집』전편 속 권6) 참조.

60) 신현이 1871년 과천 자하동에 퇴거해 있을 때 향농의 아들, 곧 손자 윤일(允一)을 공부시키기 위해 오랜 지기였던 어당 이상수(李象秀 1820~1882)를 초빙하려 했는데, 그는 병중이라 사양하고는 충청도 회인(懷仁)에 살던 제자 박문호를 추천함으로써 특별한 인연을 맺었다. 다음해 박문호는 자하동의 신정희를 방문하여 시를 즐겼으며, 1877년에는 신윤일의 백원정사(白園精舍)에서 스승을 모시고 강학하는 등 교류를 넓혀나갔다. 그리고 박문호는 1882년 3월 황현·이건초·김택영 등과 함께 별시 초시에 합격했다.(「독오시집서」<『호산집』권29>, 「연보」<『호산집』부록 권1> 참조).

61) 박문호, 「향농시집서」(『호산집』권29). “尤長於詩，尋常下筆，輒吐出不凡語，駸駸有天馬行空之勢。識者以爲公之詩於禪理爲近，蓋其天性然耳。”

같이 호평한 향농의 시집이 1882년 임오군란 때 가옥이 불탈 때 함께 사라지게 되자 박문호는 이를 안타깝게 여겨 평소 주고받았던 시 100여 수를 찾아내어 1907년에 『향농시집』을 편차했다.⁶²⁾ 그리고 박문호의 스승 이상수(李象秀 1820~1882)는 향농 신정희에게도 경학을 가르친 적이 있다.⁶³⁾

이처럼 삼화는 시적 경지가 높았고 불교에 조예가 깊었던 신정희와 교류를 통해 구도를 심화하는 데 큰 동력으로 삼았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 초입은 당시 향농과 함께 통영 미륵산의 용화사에서 시를 지었고, 축석루에 등립하여 향농이 이곳에 들른 일을 회고하였으며, 안의로 가던 중 통영에 머물고 있는 향농을 그리워하며 시도 지었다.⁶⁴⁾ 따라서 향농 선생은 신현의 장남 신정희일 뿐 의인화된 허구인물로서 매화나 계화 등의 ‘화초’로 대체될 수 없음이 분명해졌다.

5. 청간선생(靑苒先生)

삼화는 통제영에서 현학관선생과 그 아들인 소금공, 향농선생을 만난 뒤 다시 ‘청간선생’을 알현하였다. 그는 현학관선생이 도의로 맺은 친구인데, 삼화는 통영을 때때로 찾아온 그를 만나 깊은 이치를 나누었다. 당시 삼화는 청간선생의 담론에 대해 나불나불 거러 마치 꿈속에서 말하

62) 박문호, 「향농시집서」(상동). “值壬午軍變, 屋被燒火延架, 身自救之而不及, 於是
 羸羊之掛角無迹, 可尋人咸嗟惜之. ---因就平日倡酬, 亂紙中搜得其詩百餘首, 叙
 次爲一小卷, 題之曰香農詩集.”. 임오군란 때 소실된 시집은 「題申香農元戎正熙詩
 卷後」(『매천집』 권1<戊寅稿>) 시를 통해 볼 때 무인년(1878)에 황현의 서문을
 받아 엮은 것임을 알 수 있다. 『향농시집』의 존재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장지연
 의 『대동시선』 권10에 신정희의 시로 「孫石項」, 「甲串津」, 「山庄同壺山丹農獨
 共賦」 세 편의 시가 수록되어 있다.

63) 석전정호, 「鼎坐詩班各祖三教」(『석전문초』소재 『석림수필』<6>) “李晤堂象秀
 ---申威堂胤正熙, 其佗名宦家子, 受經學已.”

64) 초입, 「過龍華寺共申香農有韻」·「申香農前秋過此」·「安義道中懷書呈申香農」
 (『초입유고』 권2)

듯이 하였으므로 헛갈릴 뿐이었다고 했다. 그리하여 즉시 헤어지게 되었다고 했다.⁶⁵⁾ 이 문맥은 삼화 자신이 이해 수준이 낮은 까닭에 미처 청간선생의 진면목을 보지 못했다는 반성적 고백이다.

그렇기 때문에 청간선생이 서술 상 다시 등장하게 된다. 삼화가 머물고 있던 설랑산방(雪浪山房)으로 찾아온 청간선생이 『금강경』을 설법하자 들연 깨달았고, 그가 소동파의 「나한송」 한 수를 읊는 미묘한 소리를 곁에서 들었을 뿐인데도 삼화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환희가 들끓는 듯했다고 했다.⁶⁶⁾ 이 시기에 삼화는 상당한 깊이의 불도에 도달한 상태임을 엿볼 수 있는데, 청간선생과의 재회 구도는 불교의 깨달음이 한 단계 성숙될 수 있는 시간적 간격을 필요했음을 넉넉히 알려주는 서사 장치이다. 이처럼 청간선생은 삼화의 구도 과정을 전해주는 주요한 인물로 개입하고 있다. 비록 청간선생이 누구를 지시한 것이지는 알 수 없기는 하나, 역사적으로 실재한 여러 보조인물을 서사 구조에 일정하게 배치한 방식은 현학관선생과 도의로 교유한 청간선생이 가공으로 설정된 인물이 아님을 충분히 시사한다. 따라서 청간선생은 의인(擬人)으로서의 ‘대나무’로 확대 해석될 수는 없다고 본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삼화전」의 삼화는 삼화수라는 나무에서 이름을 빌려온 주인공의 별칭이며, 그 의도는 사찰 창건의 연원과 밀접히 관련됨을 알았다. 그리고 보조인물인 현학관선생은 통제사 신헌, 소금공과 향농선생은 현학관선생의 후계자나 수제자가 아닌 신헌의 아들 신찬희와 신정희, 현학관선생과 교유한 청간선생 등은 전부 실존인물임이 확연히 밝혀졌다. 인물들이 의인화된 자연물이 아니라는 점은 「삼화전」의 갈

65) 「삼화전」. “既而又見青芊先生，先生爲公道交，時時往來，而舉止施爲，人無得而名焉。花欲得聞緒餘，談及玄理，口吧吧，若夢中語，聽之迷悶，花卽別去。”

66) 「삼화전」. “先生後又過花於雪浪山房，同宿三鼓既作，先生忽起，爲說周『金剛』點心一則，花斗覺相契，神又豁然。明日同行，方出門去，見有一老宿，謂‘天寒以衣物，施之先生’。先生讓不得，而笑受之，便作妙音聲，爲誦『羅漢頌』一首而已，不煩開論。然花在傍，亦不覺欣湧。”

래 성격과 서사 구조를 해석할 때 중요한 단서로 삼아야 할 요소이다.

IV. 「삼화전」 공간배경의 현장성

위에서 살펴본 등장인물이 실제 인물이듯이 「삼화전」의 서사 층위에서 선택된 공간 요소도 실제적 범주로 접근될 수 있다고 본다. 다시 말하면 삼화가 주변 인물을 만나 내면의 성격 변화를 성취한 작품 공간은 실제 구도의 과정에서 내딛은 행적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겠다. 경우에 따라서는 서사 장치로서 관습화된 상상의 공간일 수도 있겠지만, 공간배경의 성격은 작품 내적 세계와 외적 세계를 동시에 고찰함으로써 얻어지게 되는 결과로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1. 연화봉(蓮花峰)

「삼화전」에서 ‘蓮花峰’은 삼화가 소금공을 처음 만난 장소이고, 삼화는 이곳에 며칠 머물다 떠나면서 소금공의 권유로 통영의 현학관선생을 찾아뵙는 기회를 얻었다. 이보다 앞서 삼화가 16세 때 출가하여 다음해 관음보살상에 공양한 장소를 “바닷가의 작은 산”⁶⁷⁾이라 했는데, 이 산은 소금공을 만난 연화봉과 동일한 곳으로 짐작된다. 삼화가 지칭한 연화봉은 고성군 개천면에 위치한 연화산(蓮花山)으로 비정된다. 그리고 석전정호의 「집초엄상인유고서」에서 보았듯이 초엄이 옥천사에서 득도(得度)했다고 했는데, 현재 옥천사는 고성의 연화산에 소재하고 있다.

초엄은 평소 특별한 인연이 있던 고성 옥천사에 더러 출입하였을 것이고, 신현이 고성 관내에 위치한 가까운 통영의 통제사로 재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두 사람이 이곳에서 만날 개연성이 짐짓 농후했다. 물

67) 「삼화전」. “十六脫白, 明年, 海隅小山, 供南海大士像.”

론 「삼화전」에서 삼화가 예전부터 현학관선생의 명성을 이미 듣고 있던 터라 그를 일부러 방문하러 가는 길에 소금공을 먼저 만나는 방식으로 서술 구도를 설정함으로써 사건 전개에 합리성도 확보한 것으로도 분석할 수 있다.

2. 황매산(黃梅山)

「삼화전」에서 ‘黃梅山’은 삼화에게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인가? 이는 삼화가 불도에 심취하는 과정에 작용한 매개 공간으로서 갖는 상징성에 대한 물음이다. 삼화가 현학관선생을 만난 것은 황매산에서 행각하던 도중에 일어난 일이었다. 그리고 삼화가 통제영에서 청간선생과 헤어진 뒤 설랑산방(雪浪山房)에서 수도하고 있을 때 그를 다시 만났다고 했는데, 설랑산방의 정확한 소재는 판단할 수 없지만 황매산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의 정보는 초엄이 옥천사에서 득도한 뒤 황매산을 근거지로 선택해 행각 수행을 실천했음을 시사한다. 강위의 「약복초상인지송계암번경」의 첫째 수 4구에 부기된 협주를 통해서 구체적인 그 근거를 확보할 수 있다. 즉 “복초공이 처음에 황매산의 박만성을 중유하면서 유교 경서를 배웠고, 시가를 잘했다. 황매산을 초지로 삼은듯한데 최근의 행각 소재를 모른다.”⁶⁸⁾라고 했는데, 초지(初地)는 보살이 불성을 닦아 부처의 지위에 이르는 52위 지위 중 십지(十地)⁶⁹⁾의 첫 단계로서 번뇌를 끊고 마음 속에 환희를 일으키는 경지를 일컫는다. 황매산은 구도의 법열을 체험하면서 내면의 오도를 심화시킨 서사 공간으로서 위상을 갖는다.

황매산은 합천군 가회면과 대병면, 산청군 차황면 경계에 위치해 있

68) 강위, 「約復初上人至松柱庵繙經獨悟名」(『고환당수초』 권6) 시의 협주. “公初從黃梅林晚醒, 受儒經, 善歌詩. 擬以黃梅爲初地, 近脚不知所在.”

69) 『화엄경』에 따르면 십지(十地)는 보살이 수행하는 단계로서 오십이위(五十二位) 가운데 41위에서 50위까지의 지위로, 부처의 지혜를 생성하고 온갖 중생을 교화하여 이롭게 하는 단계를 말한다.

다. 황매산이 당나라 승려 천연(天然)이 과거 시험을 포기하고 승려가 된 귀의처로서 중의성을 내포한다고 해도 어디까지나 서부 경남의 황매산을 공간배경으로 삼은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3. 여산(廬山)

‘廬山’은 「삼화전」의 서사 전개에서 특별한 공간으로 자리매김 되었다. 삼화가 불교의 이치를 깊이 신봉하게 되었지만 『화엄경』을 읽고 난 이후로 세간에서 설법하는 행위가 도리어 무미건조하고 지리함을 느껴 유유자적하게 바리때 하나를 넣은 바랑을 메고 들어간 곳이 바로 여산이기 때문이다.⁷⁰⁾ 여산은 삼화가 각성 자체의 단조로움을 자각하고 불도에 더욱 정진하는 무대로 삼은 곳이라는 의의가 있다. 그리고 뒤에서 고찰할 호계고사가 위치한 산이기도 하다.

여산은 초엄이 광려(匡廬)라고도 칭한 산⁷¹⁾과 동일하다. 여산은 여악(廬嶽)으로도 불리기도 했으며, 금산의 안성현에 위치한 덕유산의 별명이기도 했다.⁷²⁾ 그리고 1674년 무주현이 부로 승격될 때 안성현에서 이곳으로 편입되었고, 초엄이 행업을 실천할 당시 이곳에 머물던 강위를 만나 「의책」 발문을 지은 곳이다. 덕유산은 오늘날 호남의 무주군과 장수군, 영남의 함양군과 거창군 경계에 두루 걸쳐 있는 명산이다.

70) 「삼화전」. “自是甚信佛理，求其深於理者，讀之，前所不見者，自然便見。卻又無味於世，或見有說法世者不久，便覺支離，而不欲聞也。蕭然一鉢囊，入廬山去。”

71) 초엄, 「고환거사의책발」(상동). “余有黃梅之行，路經匡廬，忽又遇於三瀑之傍。”

72) 이안눌, 「題吏隱堂」(『동악집』 권10<금계록>) 시의 협주. “德裕山號廬山.”

윤 증, 「遊廬山行」<1652>(『명재유고』 권1) 시의 서. “廬山，卽錦山安城縣，德裕山之別名也，土山甚巨，雄於湖嶺間。”

이만부, 「花林洞記」<1725>(『식산집』 권3). “北入靈覺寺，厥山曰廬嶽，德裕南驚，頭流別幹，爲花林初頭.”

4. 삼폭(三瀑)

「삼화전」에서 삼화는 여산에 들어가 ‘三瀑’ 근처에서 다시 청간선생을 배알하여 자신이 그간에 얻은 바를 바쳤고, 이곳 송계선실(松桂禪室)에 자신을 의탁하고는 『유마경』을 읽으며 독창적인 깨달음을 얻었다고 했다.⁷³⁾

삼폭은 현재 덕유산에 인접한 금원산의 삼폭동으로 생각되는데,⁷⁴⁾ 송병선의 기문에서 “수승대 남쪽은 금원산에 삼폭동이 있는데, 기이한 경치가 수승대와 백중을 이룬다.”⁷⁵⁾라 한 데서 그 위치를 비정할 수 있다. 금원산은 거창군 위천면 상천리와 함양군 안의면 상원리 사이에 있는 산으로, 수승대 서남쪽에 위치하고 있다. 금원산은 위당 신현의 계시로 초엄이 삼화선사를 창건했다고 한 곳이다.

5. 호계고사(虎溪古寺)

「삼화전」에서 삼화는 ‘虎溪古寺’에 주석하며 『원각경』을 읽다가 번뇌의 마음을 씻었고, 종필이 주석한 ‘미륵장’에 이르러 윤희의 깊은 이치를 확신하게 되었다고 했다.⁷⁶⁾ 호계고사는 삼화가 성숙한 득도자로 변화하는 과정에 번뇌와 윤희의 불교 이치를 대오 각성하는 수도 공간으로 서사 전개에 깊숙이 개입함을 여실히 보여준다.

호계고사는 호계와 고사의 합성어이다. 이 두 공간의 역사적 현장성에

73) 「삼화전」. “拜先生於三瀑之傍，以所得者呈之。且寄松桂禪室，取閱『維摩經』，至逮無所得 不起法忍，不覺打失自己，又時從先生於道路，得以發明。”

74) 이이화가 「개화의 햇빛 밝힌 방랑자 강위」(『이이화 역사인물 이야기』, 역사비평사, 1989, p.182)에서 삼폭의 위치를 “함경도 안변의 삼방폭포”라고 비정한 것은 재고할 부분이다.

75) 송병선, 「遊安陰山水記」(『연재집』 권22). “聞搜勝西南金猿山，有三瀑布，奇觀與搜勝相爲伯仲云.”

76) 「삼화전」. “其年冬，住虎溪古寺，讀『圓覺經』。時夜將半，風雪入窓，燈火如豆，花方擁爐睡，忽抖擻精神，高聲讀，低聲讀，讀至『彌勒章』，尋草堂密註脚，覺得身臊，亦信輪回深矣.”

대한 고증을 해보기로 한다. 이안눌은 덕유산 구천둔사는 속칭 여산 백련사이고, 호계는 덕유산에 위치한다고 했다.⁷⁷⁾ 아울러 그는 다른 시에서 구천동 깊은 계곡에 고사의 누각이 감춰져 있고, 경치가 신비하여 예로부터 전하기를 여악으로 불렀다고 하였다.⁷⁸⁾ 이로써 보건대 여악으로 칭한 덕유산 구천동의 호계에 백련사가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 호계는 신현이 무주에 귀양 가 있을 때 강위와 만나 수창을 나누었던 장소이기도 하다.

호계는 현재 구천동 계곡의 호탄암(虎灘巖)에 비정되고, 백련사는 예전처럼 덕유산 향적봉 아래로 형성된 구천동 계곡 상류에 자리 잡고 있다. 따라서 삼화가 주석한 호계의 오래된 절은 백련사로 가늠할 수 있겠다. 백련사 인근에 초엄의 집이 실제 있었다는 사실은⁷⁹⁾ 더욱 이를 뒷받침한다. 호계의 고사가 동진 때 승려 혜원(惠遠)이 거처하던 여산 아래 호계의 동림사를 가리키는 중의적 공간으로 해석될지라도 작가 초엄이 구도하던 백련사임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이상에서 보듯이 황매산, 연화봉, 여산, 삼폭, 송계전실, 호계의 백련사 등은 영호남에 실재한 지명이거나 사찰 이름이었다. 아울러 이들이 한편으로는 중국의 공간배경과도 상관성이 있지만, 삼화가 불법을 깨우치기 위해 각고한 수행공간으로서 지배적 의의가 있다. 생동적인 현장은 주인공의 심리변화와 서술내용의 진정성을 한층 획득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겠다.

「삼화전」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역사성과 배경공간의 현장성은 작품 외적 정보를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 작품 내적 정보만으로는 작중

77) 이안눌의 「安城會館喜沖徽上人袖詩來訪走筆酬贈」(『동악집』 권10<금계록>) 시의 주에 “德裕山九千屯寺, 俗稱廬山白蓮社云, 虎溪又在於德裕山下.”라 하였다. 참고로 시 「題圓寂菴」(『동악집』 권10<금계록>)의 서에서 ‘九千屯’은 구천동의 본명인데, 세상에 전하면서 ‘屯’이 ‘洞’으로 변한 것이라는 승려의 말을 인용했다.

78) 이안눌, 「宿九千洞白蓮社示徽公」(상동). “山回谷轉洞門幽, 疊巘中藏古寺樓, 靈境舊傳廬岳號, 法師新着遠公流.”

79) 초엄, 「過白蓮社有感」(『초엄유고』 권2). “吾家一第猶知否, 初地風光到底寬.”

인물과 공간에 대해 충분히 인지할 수 없도록 한 것은 화자의 구도 과정에 초점화한 작가의 서술 전략으로 파악된다. 작가가 자신의 외적 정보를 간략하게 노출시킨 것에 대해서는 입전 동기와 결부시켜 분석하는 시각이 필요하다. 이를 감안할 때 「삼화전」은 고집스러웠던 한 인간이 불가에 귀의하여 선승으로의 득오 여정을 효과적으로 묘사한 작품으로 평가할 수 있다.⁸⁰⁾

V. 결 론

근대 불교를 혁신한 석전정호가 조선후기 초엄선사의 위상을 저명한 초의선사와 대등하게 평가하고 그의 유고를 편집하여 세상에 내놓음으로써 「삼화전」의 존재가 알려지게 되었다. 「삼화전」에 대한 기존 연구가 작중인물이나 공간배경을 실제 작가와 연계하지 않은 것을 문제점으로 제기하여 논의한 요점을 간추리고자 한다.

초엄선사는 1828년경 영남의 고성에서 박씨 가문의 아들로 출생했는데, 1843년 출가하여 이듬해 고성 옥천사에 득도했다. 법호는 초엄(草廣)이고, 법명은 채오(采五)이며, 별칭으로 독오(獨悟)나 채오(采吾, 彩吾) 등을 썼다. 최소한 1852년 이후 박치복과 강위로부터 경사와 시문을 익혀 당대에 벌써 거벽 혹은 명가라는 명성을 얻었다. 하지만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해 입신출세하지 못했고, 이후 『원각경』 등의 경전을 읽고 절대적 불교 진리를 완전히 깨달았고, 1862년 무렵 통영에서 통계사 신현을 만나 방외의 친교를 가졌으며, 1862년 가을에는 강위를 세 번째로 만나 「의책」의 발문을 지었는가 하면, 말년에는 금강산과 묘향산과 백두산

80) 이런 측면에서 김승호의 “화자 자신이 꽃으로 의탁되고 인물과 사건에 대한 주변적 설명이 부족한 탓에 현실감을 부여하는 데 실패하고 있다.”(앞의 논문, 31쪽)라는 언급은 동의하기 어렵다.

등 전국의 산천을 주유하며 대 자유를 즐기다가 1880년대 이후 먼 변방의 고비 사막에서 입적했다.

「삼화전」은 작가와 화자가 일치하는 자전이다. 삼화수에서 유래한 삼화(三花)는 의인화된 꽃이 아니며, 주인공을 대리하는 제삼의 인물일 뿐이다. 이는 작품에서 실제 꽃의 속성을 묘사한 예가 없다는 점에서도 입증된다. 꿈속의 계시로 주인공이 자칭하게 된 삼화는 불교의 혁신과 사찰 창건의 역할을 암시하는 것으로서 그 심층적 의미가 있다.

그리고 주인공을 둘러싼 보조인물들이 허구의 인물이 아닌 현존한 실재인물들이고, 작중 공간이 모두 실재하는 현실 공간을 반영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즉 현학관선생은 통제사 신현으로 의인화된 학이 아니고, 현학관선생의 아들 소금공은 신현의 서자 신찬희로서 소나무가 결코 아니며, 향농선생은 신현의 장남 신정희로 매화나 계화 등의 화초가 될 수 없으며, 청간선생은 신현과 도의로 교유한 인물로 대나무로 치환될 수 없음을 보았다.

등장인물과 마찬가지로 「삼화전」에서 설정된 공간배경도 삼화가 불교 이치를 대오하는 과정에서 행업을 이룬 특정한 장소들이다. 예를 들어 연화봉은 고성의 명산으로 삼화가 출가하여 득도했던 옥천사가 소재한 곳이고, 황매산은 합천과 산청 경계에 있는 산으로 삼화가 행각 수도를 실천하던 곳이며, 여산은 덕유산의 이칭으로 삼화가 초연히 불도에 정진하던 곳이며, 삼폭은 덕유산 자락의 거창과 함양 경계에 있던 계곡으로 삼화가 철저한 구도의 길을 걸었던 곳이며, 호계고사는 윤희의 깊은 진리를 깨우친 덕유산의 백련사이다. 이처럼 공간의 생생한 현장성은 작품의 진실성을 강화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삼화전」은 평범하고 완고한 인간이 불문에 귀의하여 원숙한 득오자로 변모하기까지의 내면 변화가 고스란히 담긴 작품이다. 삼화의 외적 정보를 간략하게 제시하는 대신 구도 여정의 묘사에 초점을 둔 서술 기법이라 하겠다. 작가는 삼화의 깨달음을 단계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실제

고행 장소에서 접한 역사적 인물들과의 일화들을 전략적으로 배치함으로써 그 진정성을 독자들에게 부여했다. 이것이 초엄선사가 자신을 입전한 동기이고, 불가의 자서전적 글쓰기 유형에서 찾게 되는 「삼화전」의 독특한 특징인 것이다.

참고문헌

- 초 엄(1828?~ ?), 『초엄유고(草廣遺稿)』(『한국불교전서』12책), 동국대 출판부, 1996.
- 신 헌(1811~1884), 『신헌전집(申憲全集)』상하, 아세아문화사, 1990.
_____, 『심행일기』(김종학 옮김), 푸른역사, 2010.
- 강 위(1820~1884), 『고환당수초(古歡堂收艸)』(한국문집총간 318).
- 박치복(1824~1894), 『만성집(晩醒集)』(국립중앙도서관 소장).
- 박문호(1846~1918), 『호산집(壺山集)』(국립중앙도서관 소장).
- 황 현(1855~1910), 『매천집(梅泉集)』(한국문집총간 348).
_____/임형택 외 역, 『역주 매천야록』상하, 문학과지성사, 2005.
- 박한영(1870~1948), 『석전시초(石顛詩鈔)』, 동명사, 1940.
_____, 『석전문초(石顛文鈔)』, 범보원, 1962.
_____/현성 외 역, 『영호대종사어록』, 동국출판사, 1988.
_____/서정주 역, 『석전 박한영 한시집』, 동국역경원, 2006.
_____/선운사 편, 『석전정호스님 행장과 자료집』, 여래기획, 2009.
- 범 해(1820~1896), 『동사열전(東師列傳)』(국립중앙도서관 소장).
_____/김윤세 역, 『완역 동사열전』, 광제원, 1991.
- 장지연(1864~1921), 『대동시선』, 신문관, 1918.
- 이안눌(1571~1634), 『동악집(東岳集)』(한국문집총간 78).
- 윤 증(1629~1714), 『명재유고(明齋遺稿)』(한국문집총간 135~6).
- 이만부(1664~1732), 『식산집(息山集)』(한국문집총간 178~9).
- 송병선(1836~1905), 『연재집(淵齋集)』(한국문집총간 329~330).
- 전 우(1841~1922), 『간재집(艮齋集)』(한국문집총간 332~6).
- 옥천사지간행위원회, 『蓮華玉泉의 향기』, 삼성기획, 1999.

김승호, 「불가 자전의 성격과 서술유형의 고찰-有一, 草广, 凡海의 자전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연구』35집, 동국대 문화학술원 한국문학연구소, 2008, 7~35쪽.

_____, 『한국승전문학의 연구』, 민족사, 1992.

심경호, 「초암, <삼화전>-가고 머무는 것이 고정됨이 없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 선인들의 자서전』, 이가서. 2010, 413~426쪽.

유홍준, 『완당평전』1~2, 학고재, 2002.

이이화, 「개화의 햇불 밝힌 방랑자 강위」, 『이이화 역사인물 이야기』, 역사비평사, 1989, 182~205쪽.

주승택, 『한문학과 근대문학』, 태학사, 2009.

김용옥, 『화두, 혜능과 셰익스피어』, 통나무, 1998.

필립 르죈/윤진 역, 『자서전의 규약』, 문학과지성사, 1998.

<Abstract>

A Study on the Reality of Characters and Spaces in *Samhwajeon* by Choeomseonsa

Ha, Kang-Ji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new interpret the world figured in the work of the *Samhwajeon*(三花傳) which reflected reality and to standpoint lifetime of Choeomseonsa(草廣禪師) who is self-praise the *Samhwajeon*.

The Choeom who was born about 1828 Park's family in Goh-seung(固城), Young Nam(嶺南). He had became a Buddhist monk at the Okcheonsa(玉泉寺) in 1843. When he was young, he learned poetry and prose from Park, Chi-Bok(朴致馥) and Kang, Ui(姜瑋). But he was unappreciated and undervalue. The Choeom realized the truth of Buddhist his latter year after that he make a trip around the country to enjoy the enduring spirit of freedom and pass away enter Nirvana 1880s in desert of rural outpost.

The seokjeonjeonho(石顛鼎鎬) praised Choeom highly for one of the poets of monk then he was regulation to equalized level of Choiseonsa(草衣禪師). He was gathered *Choeomyugo*(草廣遺稿) to catch Choeom's who was contribution of the latter part of the Choseon Dynasty inner space attention.

The *Samhwajeon* which is the front part of *Choeomyugo* was nominated as a main character. However we watched secondary

* Dongseo University

characters who were historical characters. If we passed over, secondary characters simply awareness natural objects which are crane, pine tree, flower, and bamboos pace of book as well. And spaces as a religious life in the work are real existence.

The *Samhwajeon* was described individual who is main character from conventionalist to reached nirvana. The motivation of autography of Choeom is provide inner honest and to find characteristic which is type of writing Buddhism.

Key Words : Choeomyugo, Samhwajeon, Choeomseonsa,
autobiography, main character, secondary character,
space, historical characters, real existence

■ 논문접수 : 2011년 11월 10일
■ 심사완료 : 2011년 12월 8일
■ 게재확정 : 2011년 12월 12일